# 외규장각 의궤 145년만에 고국으로

### 1차 반환분 75권 귀환
### 중앙박물관 수장고 직행
### 5월까지 296권 모두 환수

14일 공항 관계자들이 프랑스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145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최초 수송분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 중 유일본 8권을 포함한 1차 반환분 75권이 145년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이들 1차 반환분은 5개 유물 상자에 담긴 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 502편)를 통해 14일 낮 1시49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프랑스 현지시각 4월13일, 한국시각 14일 오전 3시10분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을 출발한 외규장각 도서는 10시간 40분간의 여행 끝에 마침내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반환 도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포장한 5개 유물 상자는 항공사가 마련한 항온·항습 특수 컨테이너 2개에 나뉘어 실렸다.

'외규장각 도서의 귀환을 아시아나가 함께 합니다'라는 글귀가 씌여진 컨테이너는 인천공항 도착 직후 흰색 작업복을 입은 지상조업사 직원들에 의해 비행기에서 내려져 곧바로 특수 운반 차량에 실린뒤 2.5㎞ 떨어진 화물터미널로 이동했다.

화물터미널에서는 통관 절차에 이어 컨테이너에서 도서가 들어있는 유물 상자 5개를 꺼내는 작업이 진행됐다.

20여분간 작업 끝에 지게차에 실려 컨테이너에서 빠져나온 유물 상자는 곧바로 무진동 특수차량 편으로 도서를 소장 · 관리하게 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파리에서 한국까지 도서를 싣고 온 아시아나항공 배정곤 기장은 "역사적인 행사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었다. 완벽한 운송을 위해 한층 더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했고, 무사히 수송을 완료하자 가슴이 벅차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1차 반환을 시발로 파리 국립도서관의 외규장각 의궤류 296권은 5월 2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돌아온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한공이 무료로 번갈아 수송한다.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강화도 왕실도서관인 외규장각에서 약탈한 도서는 1978년 재불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가 297권을 발굴해 공개하면서 존재가 알려졌으며 1991년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그 반환을 요구한 지 20년만에 돌아오게 됐다.

반환 대상 중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鑑儀軌) 상권 1책은 1993년 9월15일 한국을 찾은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반환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지난해 11월12일 G 20 서울정상회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5년 단위의 갱신이 가능한 '임대' 방식의 반환에 합의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았다.

그간 실무협상을 통해 정부 간 합의문에 서명한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간 약정으로 최종 반환 일정을 조율했다. /연합뉴스

# 日 13개 도·현 식품 사실상 '수입중단'

### 기준치 미달 증명서 요구…영유아식품 요오드 기준 신설

보건당국이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도쿄도 등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기존에 일부 식품 출하가 중단된 5개 현과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 등 식품에서 방사선 물질이 검출된 지역 8개 도와 현이다.

대상 식품은 농림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공전에서 관리하는 모든 식품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식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자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수입식품이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스트론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주 이상 소요되며 비용도 100만원가량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중단과 같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선 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영유아 수입식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 원자바오, 韓·中 FTA 협상개시 요청

김황식 국무총리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 대회당 환영식에서 나란히 서 있다. /연합뉴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우리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선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방중 사흘째인 14일 베이징 리젠트호텔에서 현지특파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원 총리는 우선 협상을 개시하고 문제를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나 "한중 FTA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 보다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선행하지 않으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와 원 총리는 전날인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총리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중 FTA도 논의됐다.

양국은 현재 FTA와 관련, 공동연구를 마쳤으나 이견으로 정부 차원의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김 총리는 "중국 측은 한중 FTA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보였으나 농수산물 등의 민감한 분야와 관련해 신중한 고려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그런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추진 방향과 일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日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언제쯤…

### 日국회 비준동의 계속 지연
### 전망 불투명…반환 지속 요구

일본에 있는 조선왕실의궤는 언제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빼앗겼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 14일 시작됐지만 올해 상반기 중 반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선왕실의궤는 여전히 일본에 남아 있다.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정상이 도서반환 협정을 체결한뒤 문화재 반환의 원칙과 대상 등을 둘러싼 실무 작업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일본 국회의 반환 협정 비준동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황 전개다.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본 정기국회에서 3월 말까지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음으로 조선왕실의궤 반환 문제를 다루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가 아직 일본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 국회에서 논의될 날이 앞으로도 요원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이후 일본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피해 복구와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기국회는 이미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집권 민주당이 대지진과 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단합은커녕 권력 투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는 상황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히 추진해온 일본 민주당이 분열될 경우 의궤 반환의 동력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일대사관과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반환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기국회는 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대로 도서반환 협정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아직 정기국회 회기가 1개월 이상 남아있는 데다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일인 만큼 조속히 반환 문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광주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급물살

광주시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안전도시(이하 안전도시) 인증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 3) 의원은 14일 "전날 열린 시정 질의에서 제안했던 안전도시 인증 추진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이 "아주 좋은 제안이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도시 인증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안전도시 인증은 광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가져다주고, 시민의 인식변화는 자연스럽게 대외적인 광주의 경쟁력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안전도시 인증을 준비할 TF팀구성은 물론 업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담부서 신설 또는 기획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인증 추진을 한다면 4년 뒤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전에 WHO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건보료 차등화 추진 논란

바닥을 드러내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법의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단은 최근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현재 소득 기준인 보험료 부과 방식에 의료시설 이용량 기준을 추가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일종의 '시장 논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부동산 매각 공고

산은캐피탈제삼호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매도인") 소유 부동산(이하, "매각대상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매도인의 자산관리자인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자산관리자")는 아래와 같이 매각을 공고합니다.

1. 매각대상부동산

| | |
|---|---|
| 소 재 지 |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62-17 위 지상 건물 중 공유지분 |
| 면 적 | 토지 : 372.14㎡ / 건물 : 1,724.26㎡ |
| 층 수 | 지상6층, 7층 |

2. 입찰일시 : 2011년 4월 22일 (금) 오후 2시
3. 입찰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번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8층 회의실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독 입찰 가능)
   - 당사 공매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함.
   - 당해 부동산이 유찰 될 경우 동일자에 2차 추가 실시함.
   - 최고 동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 동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별도 입찰 후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함.
5. 기타사항 :
   - 입찰서류 등은 당사 홈페이지(www.kdbc.co.kr)를 참조바랍니다. (4월 15일 당사 홈페이지 게재 예정)
   - 공지된 입찰유의서 등을 참조하시어 입찰보증금 및 제출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업무지원실 부동산 매각담당(02-6330-0204)으로 문의바랍니다.

2011년 4월 15일

매도인의 자산관리자 산은캐피탈주식회사